



신정재
(주)에스에프 회장

잔재와 잔류물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과거의 청산이었다. 반민족특별위원회에서 친일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친일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잔재를 소탕하려다 그들이 주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5.16구테타로 20여년간의 군사 독재정권이 붕괴되어서 새로운 민주 정권이 탄생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신군부의 출현으로 다시 10여년이 흘러서야 민주 정권이 들어섰다.

군사 독재의 잔재들을 퇴출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득세하고 있고 지금껏 그 잔류세력들이 정치권에 남아있다. 그리고 자기들의 존재를 기득권과 안보라는 무기로 민주시민참여정치를 무질서와 좌익으로 몰아치고 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잔류물은 없어져야. 그 사회가 발전한다.

요사이 들어와서 축산물의 위생과 잔류물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가고 있다. 이제 농축수산물의 생산증대에 의한 농민들의 소득증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추곡 수매가가 2%포인트 인하된 것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0%도 안 되는 농민보다는 90%의 소비자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노무현 정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이다. 그리고 최우선시 하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축수산인의 권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우선 전 생산 유통과정의 위생문제가 우선이고 다음이 축산물내의 약품의 잔류물 문제이다. 가축사양 환경이 열악하여 어쩔 수 없이 질병이 상재화 되어 있고 예방치료를 위하여 많은 약품을 써야하는 것은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국내 축산물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제 대부분의 도계장은 HACCP규격으로 생산하게 됨으로서 위생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약품의 잔류물 문제는 이제부터 철저히 신경을 써서 해결하여야 한다.

돈육의 경우는 몇 년전 대일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도축장에서 잔류물 검사를 철저히 하여 자동적으로 일반 국내 소비 돈육도 잔류물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계속, 계란인 경우는 틀리다. 현재 육계사료의 소비 형태를 보자. 한달 정도의 사육으로 1kg전후의 체중으로 출하되는 육계의 사료는 전·후기 사료로 나누어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육계 전기 사료를 출하시까지 급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다시피 전기사료에는 후기사료보다 약품사용수나 량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출하전에 휴약사료를 급여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산란계는 어떠한가. 물론 산란중인 닭은 어린 병아리와는 달리 면역성이 높아져 질병 발생율이 적지만 일단 발병시에는 치료약을 투여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예방이 물론 중요하지만 열악한 생산 환경으로서는 질병 발생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축산물내의 약품의 잔류물 검출은 검출건 수로 보나 검출량이 미미하여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가는 요즈음에는 축산물의 위생문제나 잔류물 문제는 이제 우리 축산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문제이다.

만약에 축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균이 검출되었다든지 약품의 잔류물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이는 축산물 소비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 축산물 기피 현상으로 발전할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외국 축산물의 수입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임은 뻔한 사실이다.

일제의 앞잡이 잔재의 청산을 하지 못해서 민족정기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국민의 정의감을 확립시키지 못한데서 오는 막대한 정신적인 손해를 보았다. 군사독재의 잔재들의 부패와 비민주적인 정치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나큰 정신적 폐해를 보았듯이 축산물의 위생과 약품잔류물로 인한 정신적, 건강상의 피해는 그 어느 것보다도 클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 어느 것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고 모든 축산인이 동참하여야 한다. **양계**